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7

백운 스님(前 범어사 강주) / 법화경(11월 4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요, 나머지가 들리면 이미 참됨(진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법화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오가해>를 쓰신 다섯 분의 고승 가운데 유일한 한국 선지식인 함허 스님의 초견성입이다.

여기서 ‘한 사실’은 일승을 말합니다. 이를 한 차원 높여보면,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선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번은 함허 선사 화상실에서 불일 보고 나오다가, 문득 안개 낀 회암산에 봉우리만 볼썽 튀어나온 풍경을 보고 깨

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 미물 중생이 혹시 내 발에 밟혀죽을까 봐 그것을 피하려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고 답했습니다. 사람 공경은 물론이고 미물 중생까지도 해치지 않으려는 공경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상불경’이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상불경보살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곧 ‘내가 전생에 상불경보살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부처가 된 것은 그때 상대방을 공경했기에 성불할 수 있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

습니다.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할 줄 알았던 지월 스님이야말로 상불경보살이었습시다.

상불경보살 이외에도 <법화경>에는 환희심 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승이다. 이것이 불지견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앞부분에서만 ‘부처님이 일대사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이 일승인지’에 대한 말씀은 정작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승의 가르침을 언어·문자로 말해버리면 깨달음을 못합니다. 경전을 언어·문자로 이야기하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전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행자들은 경전 밖에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줄거리로 볼 때, 부처님이 성불해 처음 설한 <회암경>과 40년 후에 설한 <법화경>은 불교 공부를 다 마쳐낸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화경>은 일승사상을 말하기 위해 소승, 중승, 대승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중생의 근기를 성숙시킨 경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면 일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뜻을 일으키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이지만, 마음에 뜻을 일으키고 보면 팔만대장경



<법화경>과 선수행을 접목한 스님의 법문은 특히 간화선 수행자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했다.

침을 경험합니다. ‘행행회수(行行忽回首), 산골입운중(山骨立雲中)’이라, ‘화상실에서 나오다가 문득 고개를 돌아보니, 산 뼈가 그 구름 속에 서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산 밑에서는 안개가 하얗게 끼었는데, 산봉우리만 우뚝 서있었다는 것입니다. 함허 선사는 두 번에 깨침의 기쁜 맛을 보고는 일대사인연을 해결했습니다. 이 두 번의 내용 모두가 <법화경>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법화경>을 보고서 못 깨진다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법화경>이든 <능엄경>이든 깨치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함허 스님의 깨침은 선과 교, 경전과 참선이 ‘둘이 아닌’을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치는 사람에게는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최고의 진리만을 설했다’는 원효 대사의 말씀이 너무도 지당합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에 상불경보살이 나옵니다. 항상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경하는 보살입니다. 상불경보살이 얼마나 상대방을 공경했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불경보살은 늘 땅만 바라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묻기를, ‘왜 보살님은 땅만 바라보고 다니니까?’ 하니, ‘내 발 밑에서 밟혀죽는 저 미물 중생이 나보다 먼저 성불할지 누



백운 스님의 법문은 시종일관 불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했다.

는 상불경보살. 그 분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법화경>의 일승사상을 선양하는 대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닦아나가 성불할 것인가를 비유한 점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이처럼 상불경보살 같은 선지식들은 대놓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굴니다.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래 선지식 가운데 하심으로 유명한 지월 스님이 계신데, 바로 이 분이 상불경보살 같은 선지식입니다. 지월 스님은 신분이 높고 낮은데도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습니다’ 하고 하심을 했

도 모두다 마군의 설법이 됩니다. 팔만대장경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마음을 밝히면 이것이 일승인 겁니다. 내가 깨쳐야 합니다. 이전에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떠나서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없습니다. 함허 스님은 ‘이 일은 한 말씀으로도 다 할 수도 있고, 혹은 많은 말씀으로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있습시다. <회암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는 차별이 없다. 마음이 곧 부처요, 중생이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뿐임을 알면, 일승뿐임을 알게 됩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질의
‘불난 집’ 벗어 나려면 ‘허망함’ 도리 알아야

[질문1]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일불승’ 사상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백운 스님] 함허 스님의 초견성처럼 일상생활에서 구도에 대한 절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홀연히 경전을 보면 깨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절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익어져야 계기가 오는 것입니다. 깨침은 꼭 이런 경우에서만 있고,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대해 종교 스님도 발심은 선후가 있지만, 깨침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익어야 깨치고 말로써 깨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2] <법화경>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화택(火宅)’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생들의 눈에는 불이 나



혜조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지 않았는데, 삼계 우주를 왜 불난 집에 비유했는지, 그 과정과 이치를 설명해주세요.

[백운 스님] 목전에 보이는 걸 보고, 불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사다. 4대 독자를 가진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세상에 아무 것도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불 난 정도가 아닙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무수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화택’이란 말이 비유 중의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불난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 일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그 허망을 알면, 거기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망을 알지 못하면, 가슴을 조이게 됩니다. 사실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더 발심을 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믿고 정진 하길

[질문1] <법화경>에서 바라보는 불신관(佛身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백운 스님] <법화경>의 ‘구원성불(久遠成佛)’을 말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어제 오늘에 성불한 것이 아니라, 구원겁 즉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부처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겁 전에 우리 중생은 모두는 이미 부처였습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번뇌·망상에 저들어서 중생이 된 것이지, 우리는 본래 부처였습시다. 또 미래의 마지막 부처님 누지(樓至)불은 아침에 태어나 사시에 성불해, 유시에 열반에 들었습시다. 그 동안에 이 세상과 우주 안의 온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시고 해질녘에 열반에 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사를 하던 대통령을 하던 농부를 하던 중노릇을 하던 뭐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살다가, 누지불 시대에 이르러 다 같이 성불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의 끝은 성불이란 말입니다. 구원성불론에서는 원래부터 모두가 부처였다는 말이고, 누지불 시대에 오면 다 제도가 돼서 성불해 열반에 든



김호귀(동국대 선학과 강사)

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성불론과 필경성불론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줍니다.

[질문2] 앞서 스님께서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이 10겁 동안 앉아 있었지만, 불법이 현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불법 속에 사니까 불법이 현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직 불법 속에 살아가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법 도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백운 스님] 도교의 성인으로 추앙

받는 장자가 어느 날, 제자와 깨울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바위 물 징검다리였습니다. 건너가다가 보니 물고기가 맑은 물에 재미있게 헤엄치고 있어, 제자가 ‘선생님, 저 고기들이 아주 활발하게 헤엄쳐있는 걸 보니 행복해보입니다’라고 하니, 장자가 ‘네가 고기가 아니거든, 어찌 고기의 마음을 안단 말인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넘는 것에 눈 뜨면 안 됩니다.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찾는 것 등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이라 여기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옹기 만났습시다. 이 때 부처님께 경전을 독송하고, 틈틈이 또 앉아서 ‘내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 하다가 보면, 금생에 이 몸뚱이로 성불을 못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 나가야 깨침이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중생인데’ ‘나는 늙었는데’ ‘나는 여자인데’ 등하고 낮춰서 자포자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성지순례 기도도량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잡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세간에 선남선녀 커플매니저로 알려진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 이야기!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대성사 따뜻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 중년, 노인 맞이하기를 실현하는 혜철 스님이 그동안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단답하 담어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예리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법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났다.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CD 7,500
Tape 3,500
도서 12,000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문의 및 구입안내 : 현대불교 대전총복지사 (043) 732-5560